

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22, 페르시아 시대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22,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좋아요, 복습하자면 우리는 바빌론 유배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900 마일의 힘든 여행을 통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 중 일부는 포로 생활이 끝난 후 동일한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배 당시 586년부터 539년까지의 날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 중 일부는 597년에 추방되었고 다니엘과 같은 일부는 훨씬 이전에 추방되었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배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 대부분은 어쨌든 망명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586년에 추방된 매우 어린 아이들의 경우, 그들은 수년 후에 성숙한 성인, 아마도 더 나이 많은 성인이 되어 돌아와서 젊음이나 어린 시절의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도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점령했으며, 그들은 아마도 고대에 현재까지 가장 큰 제국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소아시아 전역, 그리스, 유럽, 그리고 인더스 강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니 익스프레스(Pony Express)와 마찬가지로 아주 아주 좋은 시스템, 행정 시스템,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짧은 기간에 제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고 역과 말, 기수는 전환하여

페르세폴리스나 수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주요 중심지로 메시지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시간 이전에 우리는 회당인 Beit HaKneset 의 등장을 봅니다. 그리고 회당의 초기, 초기 역사는 역사적 역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9장에서 백성의 집인 베이트 하암이 요시야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를 암시할 수 있다는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구하는 연구 또는 학습의 집인 Beit Midrash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회소이자 커뮤니티 센터인 Beit HaKneset 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배 기간 동안 확실히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고, 연합을 유지하고, 서로 접촉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유대교 역사에서 회당은 실제로 믿음을 구했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둘 다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중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두 번째 성전은 처음에는 스룹바벨에 의해 건축되었고, 헤롯에 의해 리모델링되었으며,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회당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희생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회당은 기독교 교회를 위한 유대인의 원형이며, 초대 교회와 초기 사도들, 바울 및 1세기의 다른 사도들을 위한 유대인과 이방인 전도에 대한 기존의 공개 플랫폼과 지원을 제공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요약하자면, 회당은 아마도 포로 이전에 있었던 기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 안팎에 유사한 커뮤니티 센터나 유사한 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배 기간 동안 다른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유대인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은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페르시아인들이 바빌론을 정복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38년에 선포되고 공포된 이

키루스 칙령을 다시 봅니다. 이 칙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던 모든 민족이 원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첫 번째 무리가 스룹바벨 휘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다윗 가계의 일원이었으며, 확실히 어떤 종류의 지도자, 아마도 왕, 최종 왕 또는 민족주를 위한 주요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그의 운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윗 가문의 구성원이 그들의 메시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솔로몬의 성전과는 달리 훨씬 더 소박한 구조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는 바빌론에 있던 친척들과는 달리 성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제국에는 총독, 즉 지방, 더 큰 지방, 그리고 더 작은 하위 지방이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태수는 유다를 포함하는 태수 또는 태수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에게는 유다라는 이름의 예훗 이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미츠파 었던 바빌로니아 시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츠파(Mitzpah) 에 대한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통되었던 예후드 동전과 예후드 향아리 손잡이 우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있는 신사는 고(故) 에프라임 스텐인 에프라임 스텐입니다. 그는 성지의 페르시아 시대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페르시아 시대에 『성서의 물질 문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전히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서 지도는 출처와 고고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후드(Yehud) 지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율법 낭독은 모두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예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예루살렘 이웃의 끊임없는 공격 위협 때문에 그들은 한 손으로 건물을 짓고 다른 한 손으로 창을 쥐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윗 성의 동쪽 경사면에 망대가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건축한 탑의 유적 중 낮은 곳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허락을 요청한 후에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수십 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그 도시에 입힌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성벽 주위를 밤 순회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윗 성의 서쪽, 실제로는 동쪽 비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는 잔해와 파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가축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귀환자들의 다양한 가족과 씨족을 모두 모집하여 각자가 재건할 성벽의 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윗 성의 동쪽 부분은 경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고학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성벽을 경사면보다 높은 곳에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 오래된 도시, 포로 이전 도시는 버려졌습니다. 1950년대에 Michael Aviona는 이스라엘 탐험 저널(*Israel Exploration Journal*)의 느헤미야 3장, *The Walls of Nehemiah, A Minimalist View*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매우 유명한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사에 나온 삽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한밤중에 돌면서 계곡 문으로 나와 돌아오고 다윗 성과 그 너머의 전체 일주를 할 때 매우 상세한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오나는 다시 느헤미야 3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포로 이전 도시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느헤미야 3장은 포로 이전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내가 포로 이전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 성전 시대, 예레미야 시대 및 그 이전의 예루살렘의 폐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러나 Aviona는 몇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넓은 벽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단지 벽의 넓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한 이스라엘 학자는 약 20년 후에 Aviona의 기사를 따라가서 넓은 벽은 서쪽 언덕 전체를 덮는 벽인 광대한 벽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넓은 성벽은 사실 포로 이전에 서쪽 언덕을 중심으로 쌓은 성벽의 유적입니다. Aviona 대신 단순히 벽의 넓은 부분입니다. Aviona는 역시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포로 이전 예루살렘, 왕정 시대의 예루살렘은 본질적으로 다윗의 성, 오벨, 그리고 성전과 궁전이 있는 시온 산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군주제의 마지막 2세기 동안 예루살렘이 훨씬 더 컸음을 보여주는 점점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죽으면서 깨달았지만 초기에는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다음은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술가가 재구성한 예입니다. 그들은 원래 다윗 성, 성전 산, 오벨을 다시 묘사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서쪽 언덕을 다시 묘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숫자만으로는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초기 크기, 대략 솔로몬 시대의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하스몬 왕조 시대에 서쪽 언덕은 다시 묘사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를 첫 번째 성벽이라고 불렀고, 서쪽 언덕은 586년 이래 처음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우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을 선택했고, 포로 생활 중에 죽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확실히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 중 일부는 페르시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페르시아 왕도인 페르세폴리스의 멋진 전망입니다.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오늘날까지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수도인 수사는 다시 에스더서의 장면이다. 페르세폴리스만큼 잘 보존되지 않은 광범위한 유적입니다.

그것의 대부분은 진흙 벽돌로 되어 있지만, 1970년대 샤 왕조가 몰락할 때까지 많은 건축과 고고학 작업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인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루스 대왕의 거대한 정원과 궁전이자 그의 매장지였던 파사르가다에(Pasargadae)가 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는 여전히 유대 민족의 지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과 예훗 과 유다 지방을 대부분 감독하는 유대인 총독들에게 훨씬 더 관대했고 제한된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이 도래할 때까지 페르시아 통치 하에서 번영했고, 헬레니즘이 가져온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으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세션 22, 페르시아 시대입니다.